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대강절 시작

오늘은 교회절기로 대강절 첫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11/2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38.93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11.30 (632호)

말씀과 삶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1:5-9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무너질 성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2월 7일	12월 14일
윤원신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가난한 과부

오늘 본문은 보통 가난한 과부의 헌신 이야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은 결코 하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에 모형을 세우고 모형을 통해 하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모형을 우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냅니다. 그래서 위엿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위엿것을 보지 못한 땅의 속한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5번의 이혼과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남이었습니다. 즉 그것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남편으로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녀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 즉 그녀의 진짜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함으로 진짜 부요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고아와 과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를 잃어 버렸고, 과부는 신랑을 잃어 버렸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는 아무것도 기대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과부의 두 렷돈은 가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부가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에 꽂혀서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과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것마저 다 가져가시는 것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구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 들어가 먹을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중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남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둡잡게 이 땅에서 축복 받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고아됨과 과부됨을 확인한 자는 참 부모, 참 신랑을 만나게 됨으로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요함이요 내 잔이 넘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복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